**S#1. 미애의 집. 오전.**

아이폰 알람 소리가 울린다. 미애는 곁눈질로 휴대폰을 쳐다보고는 알람을 끄고 영양제 몇 알을 꺼내 물과 함께 삼킨다. 영양제 알람 말고도 휴대폰에는 많은 알람들이 예정되어 있다. 미애의 책상에는 단순한 디자인의 노트북, 마우스, 필기구들이 마치 쇼윈도에 진열된 듯 정갈하게 위치해 있다. 미애는 뭔가 마음에 안 드는지 노트북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하고는 롤러를 들어 옷의 먼지를 롤러로 꼼꼼히 떼어낸다

**S#2. 미애의 집. 정오.**

미애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지난번에 하던 작업을 이어 시작한다. 미애의 마우스 포인터의 움직임은 정적이다. 미애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도착한 메시지를 곁눈질로 확인한다. 미애는 마감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애는 기한을 의식해 입술을 살짝 깨물고 한 쪽 손 손톱을 뜯으며 초조해 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작업물을 완성하기 위해 세밀한 조정과 수정을 거치며 작업한다.

**S#3-1. 미애의 집. 오후.**

결국 미애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 완성하지 못하고 미애는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한다. 메신저 창에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다른 디자이너와 작업하겠다는 메시지가 보인다. 미애는 상실감을 느끼며 멍한 상태에 빠져있다.

**S#3-2. 미애의 집. 오후.**

미애는 작업하다 마음에 안 들어 포기했던 미완성 프로젝트들을 실행해본다. 프로젝트들은 하나같이 정적이고 차가운 색들을 사용했다. 미애는 한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미애는 브러쉬를 선택하고 포인터를 움직인다.

미애는 작업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미애가 완성한 작업물은 다채로운 그라디언트 이다.